

도계공정 개선위해 연구용역 추진

닭고기 도계, 가공수율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기대

낙후된 국내 도계 가공 기술의 향상과 계육가공업의 수준향상을 위해 본회는 '닭고기 가공 수율향상을 위한 도계공정 개선용역'을 실시한다.

닭고기 업계는 그간 종사자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방향도 농장에서 닭 생산에만 관심을 가져 종계생산성, 닭 사육기술 향상, 생산비 절감, 생산수수 증가, 질병, 사료 등에 대한 노력과 지원이 이어졌으나 WTO 무한경쟁 시대에 국내계육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통합경영체제에 의한 전과정의 모든 부문에 대한 절감노력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상품인 닭고기 단계의 종합적인 원가절감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계과정 중 수율향상 연구나 마케팅에 대한 연구는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닭고기 가공 수율 향상을 위한 용역 사업은 기업에서 바로 활용해 생산효율을 이룰 수 있는 기술의 개선을 연구한다는 데 의의가 크다. 이번 연구는 도계과정의 모든 공정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사항을 도출해 궁극적으로 도계 가공수율의 향상을 꾀하는 데 있다. 1차 산업 부문에서 2·3차 부문에 대한 연구가 우유, 돈육가공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닭고기 부문에 관련기업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노력은

닭고기 산업의 발전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95년도 닭고기 생산수에(4억 수 추정) 비교해 도계수율 1%가 개선되는 경우 닭고기 도계 가공 업계는 약 80억원의 순수 이익을 얻게 된다.

본 용역 연구사업은 도계가공장 현장작업에 참여 많은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연구내용은 ▲계사 온도·습도 등 환경요인과 사양 중 품질에 미치는 요인 ▲출하시 포계방법, 운송중 감량, 날씨, 계류장, 하치장에서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계 중 탕적, 개복, 냉각조에서의 수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현황 분석해 개선책을 모색한다. 향후 닭고기의 국내 유통규격 제정 등에도 기초자료로도 이용할 예정이다. 본회는 이 사업을 위해 닭고기 가공 수율향상을 위한 용역사업 소위원회를 구성해 미원 마니커의 서형교 사장을 위원장으로 차상협 사장, 이찬모 전무가 수고할 예정이다. 본 연구사업의 책임 연구자로는 서울산업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영현 박사가 수행할 예정이며 연구비는 본회와 산학협동재단에서 분담하게 된다. 연구기간은 여름철, 겨울철의 모든 사례 연구 등으로 약 1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본회는 앞으로도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닭고기 산업의 전문분야에 대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산, 가공, 마케팅, 소비에 관한 민간차원의 실질적인 연구 사업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위생 닭고기 생산교육 실시

서울, 대전에서 전국 도계장 및 관련공무원 대상으로

고품질의 닭고기를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회는 위생 닭고기 생산 교육을 전국의 도계장 관계자, 닭고기 유통담당자, 축산관련 공무원, 가족위생시험소 관계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월 8일(수) 대전 유성관광호텔과 5월 10일(금)에는 서울 축협 중앙회 대강당에서 각각 개최되는 이번 위생닭고기 생산 교육은 최근 수입개방으로 외국산 냉동 닭고기가 무차별적으로 국내 닭고기 시장에 선보이는 한편 소비자들의 닭고기 안전성 문제 제기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개최되어 국내 닭고기 산업의 수준향상과 산업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은 본회 주관으로 농림수산부가 후원하며 강사로는 농림수산부 가족위생과 광형근 계장의 '위생 닭고기 생산을 위한 정부시책 방향', 소비자 단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에 대하여 한국부인회 총본부 전승희 부장(대전)과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강광과 상임이사(서울)가 각각 강의한다. '위생닭고기 생산을 위한 제언'은 서울산업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영현 박사가 강의한다. 교육은 오후 1시부터 실시되며 수강은 무료이고 도계장 사주, 공장 현장책임자, 도계장 자체검사원, 시·군 및 가족위생시험소 관계관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며 닭 상인 등 유통종사자, 닭생산업자, 닭고기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참가도 가능하다.

백색육 닭고기 3저1고 퀴즈잔치

전국일간지에 광고, 자동차 등 상품 푸짐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본회는 닭고기 소비촉진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아반테 자동차타기 퀴즈잔치를 전개하고 있다.

전국의 일간신문과 주부관련 여성지, 축산전문지 등을 대상으로 5단 37cm의 광고를 게재 '백색육 닭고기의 3저1고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내용을 읽은 후 퀴즈문제의 답을 관계엽서에 적어 보내면 엄정 추천해 1등에게는 아반테 자동차(780만원 상당)를 주며 이밖에 세탁기(70만원 상당), 커피메이커(8만원 상당), 도서상품권 등을 223명에게 추첨을 통해 각각 시상한다.

이번에 2번째로 실시하는 자동차타기 퀴즈잔치는 본회 통합경영분과 전 회원사가 내는 특별회비로 충당하고 별도로 회원사별로 일간신문 광고 별도협찬을 실시해 광고회수를 늘였다. 광고는 4대 일간지 5회, 스포츠

지 5회, 한국여성신문 2회, 축산전문지 10회 등 흑백광고와 칼라광고를 4월 30일 부터 5월 17일까지 주 2~3회 계속 게재하고, 응모는 5월 21일(화)까지이다.

본 행사는 1회에 이어 이번에도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가 주관 실시하고 행사비 1억 2천만원 상당은 본회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추첨은 오는 5월 27일(월) 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후 경찰관 입회하에 실시할 예정이며 당첨자 발표는 5월 31일자(금) 스포츠 서울과 개별통지 하게 된다. 작년도 1회 행사에는 총 8만6천262통이 응모되어 1등에 대구 김현정씨(여, 회사원)가 당첨되었다.

이번 행사에도 양계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주변의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 많은 응모가 있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 백색육

닭고기의 우수성이 지속적으로 알려 질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일시 중단했던 닭고기 우수성 라디오 광고도 5월 중 2개 프로그램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가금학회, 96춘계심포지움 성황리 종료

4월 19일(금) 충남 도고에서 개최된 가금학회 '96 춘계심포지움에는 학계, 연구계, 업계인사 5백여명이 운집해, 육용종계의 사육현황, 사양관리, 질병방역, 생산성사례 발표 등으로 그간 산학협동으로 꾸준히 발전해온 양계산업의 세를 과시하는 데 충분했다. 세미나 유료등록 206명, 협찬업체 15단체 등 성황을 이룬 이면에는 학회에 대한 양계업계의 남다른 애정과 산업현장의 애로청취 등 시사성있는 주제 설정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심포지움에는 산업계 젊은 기술자들의 과학적인 접근으로 연구노력하는 자세와 진일보된 전문적인 지식의 교환의 장으로 손색이 없어 양계산업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창간16주년 기념행사

한국농어민신문은(대표 황민영) 동지 창간 16주년 기념 및 월간 'Korea Agrafood', 계간 '농정과 자치' 발간기념 대회를 지난 4월 24일(수) 13:30 부터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가졌다. 1부 기념강연에서는 김경일 원장(성암교육원)의 21세기를 사는 삶의 지혜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2부 기념식에서는 회사 연혁보고, 기념사, 시상식, 명가장 학금 수여 등의 순서와 3부에는 관련업계 인사들을 총 망라한 기념자축연을 가졌다.

4월 계열사육 생산책임자 정례회의

계열사육 생산책임자 4월 정례회의가 지난 4월 17일 14:00 부터 본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 3월의 계열사육 입추실적 및 4~6월 중 입추계획에 대한 의견교환과 각사별 농가 계열사육 계약서 비교검토가 있었다.

한편 회의에 앞서 개최된 질병세미나에서는 '브로일러 C.C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었다. 강사로 초빙된 수의과학연구소 송창선 연구관은 C.C 백신 프로그램에 대해 10여분에 걸쳐 설명을 한 후 각사별로 야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Case에 대한 사례를 80분간 질

의응답을 가져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었다.

업체별 사육현황은 3월에 회원 계열사 입추 실적 약 1천3백5십만수에 비해 4월에 28% 증가된 1천5백6십만수, 5월에 2천만수(전월대비 27%증) 입추를 전망했다.

매월 회원사 입식결과 및 입추계획에 대한 의견교환으로 계열사간 입추 및 가격에 대한 전망이 예측되고 있다.

5월 회의는 17일(금)에 열리는 닭고기 가공 및 홍보 세미나 개최에 앞서 13:00에 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본회 준회원, 특별회원 모집

지난 4월 초 본회 정관개정으로 협회 명칭이 한국위생계육산업협회(약칭, 한국계육협회)로 변경됨에 따라 본회는 국제화시대의 현실감 있게 국내 닭고기 산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을 일부 수정해 과거 가금처리 단일 기능에서 닭고기의 생산, 처리, 가공, 유통까지 통합경영 개념의 전 산업과정을 망라하여 목적사업을 수행케 되었다.

이에 따라 협회 조직도 현행 가금처리업체와 계열화주체가 참여하는 정회원외에 닭고기 관련 업계의 모든 분야 종사자들로 구성된 준회원 제도를 신설해 운용한다. 본회 준회원은 사료, 약품, 종계, 부화, 닭 유통업, 기계·기구업, 닭외식산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닭과 연관된 모든 업종의 종사자들로(또는 법인) 입회신청을 받아 공동 관심사를 협의할 예정이다.

준회원은 본회 각종 회의에 참가해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발언(의견교환) 뿐만 아니라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세미나에 참석, 정보자료 제공, 인쇄·홍보물 제공을 받게 되며 준회원을 위한 모임개최와 준회원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정회원사들이 우선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본회는 현재 회원사의 닭생산을 위한 원자재, 약품, 계사시설, 기계·기구 공동구매를 위한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본회는 또한 계육산업분야를 연구하는 학자, 학회,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자로(또는 법인) 구성된 특별회원 제도를 도입해 닭고기 산업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준회원 및 특별회원 가입자격의 제한은 없으며, 닭고기 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모든 개인(또한 법인)에게 개방되어 있다.

많은 인사들의 참여를 바란다. 회원의 가입은 별도의 입회신청서 작성과 회비 준회원 연간 100,000원, 특별회원 30,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 총무부(전화 (02) 536-9855~6) 문의하면 된다.

멕시코, 가금인플루엔자로 부터 해방

Mexican Poultry Union 은 멕시코가 이제 가금인플루엔자(AI)로 부터 해방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가지 범주가 있는데 AI 완전해방지역과 AI백신프리지역(AI바이러스가 AI백신으로 콘트롤되고 있음)으로 AI백신프리지역은 Puebla와 Queretaro지역이다.

이 두 지역은 AI발생최악의 지역이었다.

계육가공 및 소비홍보세미나

본회는 대한양계협회와 미국대두협회(ASA), 미국사료곡물협회(USFG) 후원으로 오는 5월 17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계육가공 및 소비홍보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내 도계 가공산업은 통닭 위주의 소비형태로 현재 가공품은 전체 생산량의 3%도 못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계열주체를 중심으로 가공산업화를 서두르고 있는데 기술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95년부터 수입되기 시작한 외국산 냉동닭고기의 97년 전면개방을 앞두고 국내 닭고기 가공산업의 기술향상과 닭고기 소비촉진홍보활동의 선진화를 위해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미국 닭고기 가공산업과 가공기술에 대한 집중 논의와 미국 닭고기 산업의 마케팅 활동과 대소비자서비스 활동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강사로는 미국 미시시피 주립대학의 Dr. T.C. CHEN(식품공학 및 가공기술)과 마케팅 자문의 Newman, Saylor &

Gregory 사의 대표 Mr. R. N. Gregory(미 NBC 자문위원, 식품 마케팅 전문가)가 초빙되었다. 본회는 해당 전문가를 회원사로 안내해 각사별 관심사에 대해 개별자문을 현장에서 한 주간에 걸쳐 실시하며 업계인사를 위한 세미나를 5월 17일 갖게된다.

세미나 안내는 본회 회원들에게(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별도의 안내장을 발송하였다. 계육가공 및 소비홍보에 관심있는 분은 회원여부에 관계없이 별도의 안내장을 송부할 예정인 바 본회(536-9855)로 문의 바란다.

영육, '해피링' 2호점, 개장

영육판매(주)가 운영하는 치킨부분육 전문 패스트푸드점인 '해피링'이 지난 17일 경기도 안산 세반백화점내에 52평 규모의 직매점을 개장했다.

지난 2월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에 1호점을 낸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직영점을 열었는데 금년안에 약 20여개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오픈할 계획이다.

유해 잔류물질 검사 강화

허용기준 초과하면 육류 판매금지

7월 1일부터 국산 육류에 대해 항생제와 합성항균제 등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가 전면 실시되고 허용기준치를 넘은 육류의 식용 판매가 금지된다.

농림수산부는 국산 육류에 대한 위생수준을 높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페니실린' 등 항생제와 '설파메타진' 등 합성항균제의 잔류량에 대한 규제검사를 오는 7월부터 심사키로 했다.

우선 닭고기와 쇠고기에 대한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가 실시되며 돼지고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농림수산부는 육류에 항생제나 항균제가 잔류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가축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 오용하는 데 있다고 지적, 동물약품을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7~15일이 지난 후 가축을 출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산 육류 유해성 잔류물질 규제 검사계획'에 따르면 일단 도축장에 출하된 닭이나 소, 돼지의 피를 뽑아 생체검사를 실시해 양성판정을 받으면 도축자체가 금지된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부는 유해성 잔류물질 규제검사에 필요한 첨단장비 및 인력보강에 25억을 투입키로 했다.

제6차 가금처리분과위원회 개최

96년 제6차 가금처리분과위원회가(위원장 홍철호 양지실업 대표) 4월 29일(월) 충남 천안에서 개최되었다. 경기 중부지역과 충청지역 위탁도계업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그 동안 서울에서만 모여 관심사를 논하던 것에서 탈피, 충남·북 회원들의 참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충남

천안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참석한 16명의 회원들은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위생도계육 생산과 유통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회 회원으로 적극 참여하자는 뜻을 모았다. 5월 회의는 8일 대전과 10일 서울서 개최되는 위생 닭고기 생산교육 참가로 오는 5월 13일(월) 오후2시에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기로 했다.

축산기술연, 닭급사증후군 억제방안 모색

성장이 빠르고 증체율이 뛰어난 수컷에서 주로 발생하는 닭급사증후군(SDS)은 닭이 3~5주령에 이르러 뚜렷한 이유없이 급작스럽게 폐사되어 일선 육계농가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DS는 조기 폐사로 인해 2kg 대 육계생산을 통한 우리나라 닭고기의 규격화와 부분육 가공의 경제성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축산기술연구소는 올해부터 98년까지 육종, 영양사료, 및 시설환경학적 제어기술 확립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영육농산, 건설업 진출

영육농산의 계열사인 영건산업(대표 이태봉)은 지난달 30일 모델하우스 오픈식을 갖고 중량구 상봉동에 위치한 구 영육 사료공장부지에 짓게 될 APT 3백86세대에 대한 분양에 착수했다. 또한 경기도 용인에 6월 준공을 목표로 육가공공장 신축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

축면적 2천평에 1일 원료육 1만2천kg 처리능력을 갖추도록 신축하는 이 육가공장은 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국내 축산농가 보호, 양질의 규격화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육계계열화사업의 일환이다.

일본, '96닭고기수요 증가예측

일본 농수산성은 96년 닭고기 수요량을 가계소비량은 전년보다 1% 증가한 56만 3천톤, 가공업무용 소비량은 1% 증가한 125만 3천톤으로 총 181만 6천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급량은 일본내 생산량을 전년보다 1.3% 감소한 125만 4천톤, 수입량은 54만톤으로 계 179만 4천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급차이가 나는 2만 2천톤은 재고량에서 충당하고 년도말 재고량을 7만 4천톤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일본, 수입육 원산국표시 의무화

일본 정부는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수입육의 원산국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성은 이를 위해 빠르면 6월부터 『식육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해 관련국가에 통지할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업자들이 스스로 원산국을 표시하도록 식육업계에 이를 지시했다. 이는 수입육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닭고기를 포함한 식육 전체에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96계열화사업 지원 닭 2개소

기존업체규모 충분, 신규지원 신중해야

농림수산부는 96년 가축계열화사업에서 닭 2개소, 돼지 1개소 등 3개소를 지원할 계획인데 현재 계열화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액은 2년 분할 지원하며 96년 1차년도는 닭 6억1천8백만원, 돼지 45억원이다. 지원비율은 용자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며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구분상환으로 연리 8%이다. 신청자격은 도계(도축), 부화, 사료제조업, 종축업 등 축산관련사업자로 대상자는 지원대상이 되는 시설부지(사육시설, 도계(도축)장, 종축생산시설, 가공 및 판매 시설에 한정)를 미리 확보해야 하며 축산관련업자로서 완전 또는 부분계열화사업을 할 수 있어

야 한다.

정부가 밝히는 우선순위는 ▲ 자율적으로 가축계열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규모확대를 위한 시설 보완이 필요한 업체 ▲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일부시설을 확보하고 미비한 시설을 신축하거나 시설보완으로 계열화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업체 ▲기존의 지원을 받은 계열화업체로서 규모확충과 보완을 위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두고 있다.

그러나 닭계열화사업은 현재 기존업체의 생산규모가 국내시장의 공급규모를 훨씬 넘고 있어 신규업체에 대한 지원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냉동닭고기 수입 인기 시들

외국산 계육가격 상승에 국내소비감소 겹쳐

96 MMA 물량 냉동닭고기 1만 4백톤에 대한 수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책정된 냉동닭고기 MMA 물량 1만 4백톤중 3월까지의 냉동닭고기 수입은 2월 79톤, 3월 2백 50여톤 등 전체 물량의 3.3% 수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냉동닭고기 수입을 포기하는 업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내 닭고기 소비의 부진으로 지속적인 닭값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 올초부터 시작된 산지육계가격의 폭등으로 외국산 수입닭고기의 대량 수입이 예상되었으나 냉동닭고기의 수입은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 사료곡물가격의 상승 등으로 닭고기 생산비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수입닭고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도 평균 10% 이상 닭고기 가격이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4월은 8백83톤이 수입되었으며 평균가격은 kg당 1.76불(약 1,373원)로 전년에 비해 약25%가 상승했다.

터어키, 가금산업 급성장

터어키의 가금산업이 근년에 들어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터어키는 10년전만 해도 육계산업을 포함한 가금산업은 연간 총생산 21만톤으로 매우 취약한 면모를 보였으나 지난 2년간 연간 10%이상의 발전을 거듭하여 앞으로는 10년내에 매년 8%씩 성장, 연간 총생산이 적어도 75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육계납세조합, 사무실 이전

육계납세조합은 4월 28일자로 서초구 방배동 924 - 13

청림빌딩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 Tel : 525 - 4624, 6

· Fax : 525 - 4626

깨끗하고
신선한 닭고기



MIWON 미원마니커주식회사

신선하고 깨끗한
HAIMARROW **에마로치킨**
Chicken



(주) TS에마로
TS HAIMARROW Co., Ltd.

가공·위생업무 농림수산부로 일원화될듯

가공식품 안전성확보에 새로운 전기

본 계육산업뉴스의 지난 4월호에 게재된 바 있는 '가공, 위생업무의 농림수산부로 일원화'에 대한 염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쇄신위원회는 4월 24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실무위원회를 열고 축산물가공식품 관리업무의 일원화 안건을 논의, 현재 생산은 농림수산부가 가공은 보건복지부가 맡는 등 일원화된 업무를 농림수산부로 일원화 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축산물 가공식품의 관리업무는 그동안

농림수산부에서 관장해오다가 지난 85년 7월 보건복지부로 이관됐으며, 그 이후 축산업계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농림수산부 재이관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축산업계는 축산물가공식품 관리업무가 일원화되면 생산과 가공, 위생관리업무를 농림수산부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해 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조절은 물론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수축산)

축산업, 전업화 경향 뚜렷

닭, 소, 돼지의 사육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농림수산부가 지난 3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가축 사육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년동기 보다는 닭, 한우, 젓소, 돼지 등 4개 축종 모두 사육마리수가 증가했으나 전분기에 비해 닭과 돼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의 경우 사육마리수는 8천3백10만9천마리로 지난 12월보다 2백69만1천마리인 3.1%가 줄었으나 1년전에 비해서는 5백6만7천마리(6.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가구수는 18만9천가구로 지난 12월보다는 1만4천가구가 줄었으나 1년전 보다

는 1만가구가 늘어났다.

이같이 전반적으로 사육마리수가 늘어난 것은 경쟁력제고를 위한 구조개선사업 추진으로 사육규모 확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당 사육마리수는 4백40마리로 전년동기보다 4마리가 각각 늘어나 전업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 닭고기 일본수출 급증

중국의 대일본 닭고기 수출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육류수출협회가 작성한 '닭고기 대일 수출 가능성 연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중

국은 93년 31만9천5백45kg, 94년 1백90만1천3백36kg을 일본에 수출하는 등 대일 수출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일본에 냉장닭고기를 위주로 수출하고 있는데 93년 중국이 수출한 냉장닭고기의 수출단가도 톤당 최고 2백93달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94년은 1백90만1천kg으로 93년보다 6배가 증가되었고, 95년 3월에는 냉장육수출량이 41만3백39kg으로 93년 1년간 수출량보다 많았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냉동닭고기보다 냉장닭고기로 대일수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배합사료가격 평균 11.6% 인상

국내 대부분 배합사료 생산업체들이 15일부터 농가에 공급하는 사료값을 평균 11.6% 인상했다. 대규모 사료생산업체에 따르면 4월순수부터 농가에 공급하는 사료값을 양계용 11.9%, 비육용 13.6%, 낙농용 12.5%, 양돈용 11.1%, 기타용 10.3% 등 평균 11.6%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합사료 생산량의 25%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축협과 중소사료 생산업체들도 뒤따라 사료값을 계속 인상하고 있어 양축농민들의 축산물 생산비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도 산지농협에서 공급하는 사료값을 15일부터 평균 11.6% 인상했다.

● 정부 품질인증(EM마크)획득!
● 국산 신기술(KT마크)획득!
- 태진기계는 정부에서도 품질을 보증합니다. -

- ▲ 자동도체이양기 ▲ 자동도체 향문정단기 ▲ 자동도체 중량선별기
- ▲ 자동도체 개봉기 ▲ 자동도체 내장적출기 ✨ 허가보증기간 : 3년 ✨ 즉각적 부품조달 및 A/S
- ▲ 자동도체 가슴절개기 ▲ 자동도체 최종검사기 ✨ 국산기계구입자금대출 대상품목(3년거치 5년분할상환)
- ▲ 자동도체 기도 및 소낭제거기 ▲ 자동도체 중앙선별기

비위생 야간도계 근절 필요

위생닭고기 소비자단체 관심고조

소비자단체에서 닭고기 위생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야간작업 도계장에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낮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전국 60여개 도계장 가운데 현재 10 ~ 15개 도계장에서 야간도계를 행하고 있는데 비용절감을 위해 냉각과정 및 내장적출등 기타 도계과정이 생략되거나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닭고기 위생확보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위탁에 의한 야간도계물량중 도계 후 출고시 닭온도가 15 ~ 20℃까지 올라 감이 피어 오르는 상태로 보냉차가 아닌 탑차로(냉장·동 장치가 없는) 운반하는 경우가 있어 장시간 위생확보가 어려운데다 변질과 부패 등 식품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위탁도계의 경우 과당경쟁으로 적정 도계료를 받지 않고 덤핑으로 숫자채우기에 급급해 이러한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위생적인 도계처리를 위한 순수 위탁도계수수료는 현재 230 ~ 25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비해 일부 도계장에서 150 ~ 180원을 받으며 중상인들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성수기인 하절기를 앞

두고 닭고기 위생근절을 위해 5월중 도계장 위생관리강화 교육과 행정지도를 떠나갈 예정이며 오는 7월부터는 닭고기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육계가격 컴퓨터 예측프로그램 개발 -전국대학교 김정주 교수-

95년부터 농림수산부가 시행하는 농가 현장어로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대학교 김정주교수는 '육계농가를 위한 가격 예측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한 정부로부터 이용법에 육계농가에 교육하는 일을 위촉받았으며 교육에 관한 일체의 모든 것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이전의 가격만을 자료로 하여 가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에 앞으로 육계농가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육수수의 조절등의 대책으로 가격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예측은 일별과 주별예측으로 나누어지며 결과는 수치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가금가공학 책자 발간

'가금가공학(POULTRY PROCESSING) 책이 발간되었

다. 서울산업대학 출판부가 지난 3월에 한정량을 발간한 가금가공학 책자는 그동안 털과 내장제거 위주의 국내 도계업체에 도계운반, 도계공정, 부분육 또는 발골공정에 대한 소개와 닭고기 제품의 생산, 닭고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장기간 보관방법, 도계가공공장의 부지선정과 설비배치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의 집필로 닭고기 가공에 대한 국내 연구가 드문 형편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도계장 운영자나 현장 기술자 뿐만 아니라 가금을 전공하는 축산학도, 닭고기 가공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산업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영현 박사와 본회 김홍국 회장(하림 대표), 미국 미시시피주립대학 Chen 박사가 공동집필한 가금가공학 책은 신국판 228쪽으로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본회로 문의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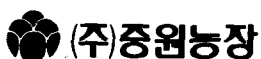
본회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번호	구분	성명	소속	영종
1	정회원	조종민	(주)제농축산	위탁도계업
2	정회원	박춘우	인천(별주)	위탁도계업
3	정회원	이수남	(주)한도통	위탁도계업
4	정회원	김문중	(주)성일농업	위탁도계업
5	정회원	조남규	(주)쌍양통	위탁도계업
6	준회원	남구한	(주)강축	사료
7	준회원	안형진	(주)유리나코아	사료
8	준회원	배선채	(주)정원농장	부화, 무염업
9	준회원	사정범	(주)제일농화	약품
10	특별회원	이규호	경원대 축대학	학교
11	특별회원	강창원	건대 축대학	학교
12	특별회원	윤철호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연구기관
13	특별회원	김정주	전국대 농업경제학과	학교

96.5.8. 현재

에 이 비 안

대한양계협회 능력검정 '94, '95 2년 연속 1위!
에이비안은 육계농장
개발주체 에 더 많은 이익을 드립니다.



영입부 TEL(0417)567-7792, FAX(0417)554-0771

화이트 미트의 시대!

KS닭고기회사
하림이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회사
(주)하림
HALIM & CO., LTD.